

시대문감옥 순국선열

1백여위 위령재 봉행

삼중스님·유족회 주관...기도 참석 '참회서' 낭독 예정

광복 50년만에 처음으로 일제에 의해 시대문감옥에서 순국한 선열들의 영령들을 천도하는 위령대법회가 오는 5일 시대문감옥 유적지인 서울 독립공원에서 봉행된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모임인 순국선열유족회(회장 이종갑)와 삼중스님(부산 자비사 주지)·주관으로 열리는 '시대문 감옥 순국선열 위령대제'는 오전 10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6개 종교단체와 사회단체들이 참석할 가운데 치워진다.

종교별 의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위령대제는 독립공원내 순국선열 추념탑 앞을 비롯 수많은 애국선열들이 순국한 사형장터, 유관순열사가 갇혀 있던 여사터 앞에서 추모제를 봉행한다. 또한 2부행사로 이종갑 무용단과 참관대 무용단들이 마련하는 추모공연도 거행된다.

이번 위령대의 제단에는 구한말 의병활동을 벌이다 체포된 13도창의군 이현영선생, 유관순열사 이재정의사 김동삼선생 등 해방이전 시대문 감옥에서 사형당하거나 옥사한 1백여

명의 위패가 모셔진다. 이밖에도 해외에서 순국한 애국열사, 일제시대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순국선열 합동위패도 함께 모셔진다.

한편 일본 '일한불교복지협회' 가키누마 센신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1백여명이 위령대제에 동참, 한일 과거에 대한 '참회서'를 낭독할 예정이다.

86년 자비사 신도들과 함께 시대문감옥에서 천도재를 지낸 삼중스님은 "시대문감옥에서 돌아간 순국영령들에 대한 천도재를 지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위령대제를 준비해왔다"며 "광복 50주년을 맞아 많은 행사가 준비되고 있지만 이렇듯 순국한 선열들을 위령하는 것이 무엇보다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순국선열유족회 이종갑회장은 행사에 앞서 "이번 위령대제를 통해 순국선열들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전국민이 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순국한 선열들의 명복을 빌어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근 기자

이곳이 사형장
순국선열들이 숨겨진 시대문감옥 사형장에서 삼중스님, 이종갑 순국선열유족회장(왼쪽), 박찬성 씨가 5일에 있을 위령대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7대문 감옥 순국선열 위령제

우리는 英靈들에게 먼저

具 常

우리는 영령들에게 먼저 광복 50돌이 되는 이제껏 이 나라의 완전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듯 남들의 그 수구형상에 모여서恨겹친 닢들의 鎖魂만을 축원하옵는 이 무능과 용렬을 사죄드립니다

어쩌면 남들의 그 忠節의 닢들은 아직도 저승에서 피를 흘리지 않는 그런 죄책과 가책이 가슴을 찢어내다

한마디로 남들이 목숨을 걸고 바쳐서 바라고 그리던 이 나라의 독립이란게 이렇듯 허리질린 두동강의 땅조각과 저레끼리 포문과 총구를 맞쳐놓고 있는 이런 해괴하고 망측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념의 쇄살로 백성들에게 생강목살이를 시키는 북한의 오늘이나 황금만능으로 부정부패와 비리가 판을 치고 인륜에 눈이 먼 남한의 세상살이가 남들이 목숨과 바구신 광복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만이라도 남들의 닢을 위로하고 축원하기 앞서 우리의 오늘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자신의 오늘을 가차없이 참회하자

아무리 한치 앞이 안보이는 시대지만 또 날이 불안과 절망이 되겠지만 우리는 인간의 정표인 양심을 밝혀서 북은 그 이념의 허깨비에서 벗어나고 남은 그 황금의 송아지를 몰아내서 남들의 닢이 눈감지 못하고 갈망하는 완전독립을 이루고 정의사회를 만들자

그리하여 우리의 두동강 난 강토가 새살로 아물어 그 아픔도 딱 가시고 이 죽음터에 겨레의 성정이 세워져서 남북형제가 다함께 머리를 조아릴 때 남들의 닢도 영원한 안식에 드시리

우란분재 유래와 의의

8월11일(음 7월15일)은 불가의 5대명절 가운데 하나인 우란분재(盂蘭盆會)이다. 백중(百衆)이다.

이날은 스님들이 하얀거를 마치는 날로 각 사찰에서는 지옥과 아귀도를 받은 중생은 물론 현세의 부모와 7대의 부모를 위해 천도재를 봉행한다.

우란분재의 유래는 <우란분경>에 목련존자가 그 어머니를 아귀도에서 구해내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7월 15일(음) 안거 자자일에 여러 가지 음식, 과일 등과 초 등 공양구를 갖추어 여러 스님네를 위해 공양을 베푼 것에서 비롯됐다.

△방생과 공양의 날로 이름할 수 있다.

특히 각 사찰에서는 금번 우란분재를 맞아 문민정부가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나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참사로 인해 세상을 떠난 영가들을 위한 왕생기도나 영산재를 준비하고 있다.

죽음을 달래고 지혜의 눈을 뜨게하기 위해 재를 올리고 공양하는 것은 단지 한개인의 극락왕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무주공산의 원한을 풀어 극락왕생하게 하는 동시에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공덕이 돌아오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우란분재 '생명해방 대축제' 전국사찰 효부상·경로잔치 마련

8월11일 우란분재를 맞아 전국의 각 사찰에서는 천도재를 비롯 경로잔치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 봉은사(주지 무상)는 지난해에 이어 금번에도 우란분재를 '생명해방의 대축제'로 정하고 11일 오후3시부터 천도재와 마당극을 펼친다.

이번 축제에는 범패(김구해 인목스님), 종플란(살판), 마당극(백두산), 만담(박철민) 등이 별도로 진행된다.

봉은사 주지 무상스님은 "우란분재는 불교명절이자 세시중속인 백중과 결합된 날로 범국민적 축제일로 승화시키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도

14일 오후 2시 백중경노잔치를 벌인다. 이날 행사에는 효자, 효부시상식과 장기자랑, 연예인초청공연이 펼쳐진다.

석왕사는 이어 27일 오후5시 백중 노동자문화대잔치를 개최한다.

한편 전국의 각 사찰도 우란분재를 기해 천도재를 비롯 효와 관련된 각종 행사를 준비해 놓고 있다.

전국 교구임원 연수 법화중, 지난17일 안성사 대고종, 사전소양시행 실시

태고종(총무원장 박서봉스님)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열려 경남 통영 안성사에서 '전국교구 총무원장 및 임직원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문구암공정을 비롯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가해 종무지도, 종도교의법, 선 수행 등의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중헌종법공정회를 갖고 선거법 개정, 포교원제와 교육위원회 신설, 사정원의 폐지와 사정위원회의 신설을 통해 상벌제도 관장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도모했다.

효행 주간 설정·수행지침 세워 효도·노동의 날...방생공양실천

죽 출가자의 수행공덕과 보시자의 공양공덕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어떤 악업의 중생도 구제될 수 있다는 뜻이 담겨있다.

또한 우리 조상들은 7월15일(음)을 중원(中元)이라 일컫고 백중(百衆), 백중이라하여 작은 명절로 삼아왔다. 백중은 백가지 곡식의 씨앗을 갖추어 놓았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농민을 위로하고 휴식하도록 하는 날이다.

이처럼 우란분재, 백중은 2종의 다양한 민속이 전해져 오는데 오늘날 새로운 조망하듯 면 대체로 △소상을 기리는 효도의 날 △승모로운 노동절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락)도 금번 우란분재를 맞아 효행주간을 정하고 수행지침을 밝혔다.

포교원이 제시한 수행지침은 ▲기도와 발원-불가신 부모와 조상들의 왕생극락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살아계신 부모에 지성으로 효도. ▲사경과 독송-(우란분경)이나 (부모은중경) 사경은 곧 부처님을 보는 것 ▲항회와 삼보공덕-불효를 뉘우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선조의 왕생극락 발원 ▲보시와 공덕을 쌓는 생활 ▲부모님과 대화하기 ▲봉사활동 참여하기 등이다.

중헌종법개정 실무위 구성 태고종, 사정원·승려법등 검토 개혁추진

태고종(총무원장 박서봉스님)은 지난 70회 중앙총회에서 통과된 종단개혁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중헌종법개정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에 구성된 실무위원회는 지난 27일 1차 전체회의를 갖고 52인의 기초위원을 선정, 9월 20일까지 본격적인 중헌종법개정 및 제정안 초안작성 작업에 들어갔다.

중헌종법개정이 마무리되는 9월 20일경에는 그동안의 초안 작업결과를 토대로 2차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초안심의의를 확정 짓고, 10월중에 열리게 될 71회 정기중앙총회에 상정하게 된다.

실무위원회가 다루게 될 종법 개정 및 제정대상은 중앙사법원(사정원)법, 승려법, 교육법, 종무직인법, 상벌법, 사찰법, 공헌법, 법인관리법, 특별위원회 설치법, 분담금부과 징수법, 종학협의회의 조례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0 가운데 사찰법, 공헌법, 법인관리법, 특별위원회 설치법, 분담금부과징수법등은 새로 제정하게 될 종법이다.

불교 인터넷정보 급증세 세계여성불교대회 1~7일 복인도 라닥서

최근 인터넷에 대한 관심과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불교계 내에서도 불교정보구축을 위한 노력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사상이 한창이다.

현재 인터넷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불교사이트는 전세계 50여개 정도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등록대에서 처음으로 만든 Buddhist web Home Page가 준비상태이다.

세계 유명 스님들의 법문을 인터넷에 띄우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 동양학 연구소에서 한국의 경허스님을 비롯 탁한한 선사들의 법문이 제공되고 있다.

http://coombs.anu.edu.au 찾아 들어가면 시대와 장소 초월하여 유명한 선사의 법문을 볼 수가 있다.

세계여성불교대회의 1~7일 복인도 라닥서

제4차 세계 여성불교대회의가 1일부터 7일까지 복인도 라닥에서 열린다.

국제 여성불교도 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Women, IABW)과 라닥 신도회, 라닥 여성신도회가 주최가 되어 △나의 여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관승과 적음 △불교를 믿는 이유 △삶의 선택(승려와 재가신도) △불교와 어린이 △불교와 여성의 건강 등을 주제로 회의와 토론회가 펼쳐진다.

일본 문부대인의 자문기관인 종교법인 심의회는 지난달 20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올 진리교 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종교법인법 개정 문제를 심의, 검토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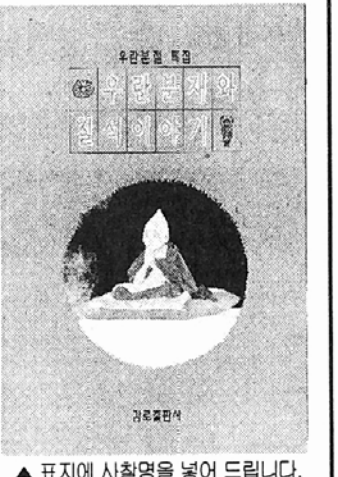
이번 종교법인법 개정은 종교법인의 활동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보고제 도입과 관할청을 도부현 지사에서 문부성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주로 골자로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시안은 올 가을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찰의 '사보(寺報)'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란분절 법회 · 칠석법회 설법자료 및 범보시 책자 보급 안내 ①

우란분재의 연원, 우란분재의 의미, 우란분재에 얽힌 이야기, 칠월 칠석의 유래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우란분절 법회, 칠석법회 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법회 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우란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범보시가 될 것입니다.



- 수록내용**
- | | |
|--|---|
| 제1부 발원문
1 우란분절 발원문
2 우란분절 풍속법회 식순 | 제2부 믿음의 근본, 효:우란분재
1 우란분재의 연원
2 우란분재란
3 우란분재의 의미
4 우란분절과 백중 |
| 제3부 우란분재에 얽힌 이야기
1 나뭇잎의 줄기
2 어머니를 찾아 지옥으로 간 목련존자
3 우란분재를 올린다
4 부처님께서 우란분재를 베풀라 하신 질문은? | 제4부 칠월칠석
1 칠석의 유래
2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칠석재
3 칠월성군 전언과 부작 |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그리고 인사말, 법회안내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범보시 가격/1권당 1,000원
- 크기/신국판(152cm×223cm) 64페이지
- 책 뒷장에 범보시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 미리 접수 바랍니다.

[온라인 번호]
농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체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문빈

후 사상의 3대 경전 부모은중경·우란분경·목련경을 한데 모았습니다.

우란분절 법회 설법자료 및 범보시 책자 보급 안내 ②

부모은중경·목련경·우란분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우란분회에 대하여, 우리말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록하였으므로 우란분절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효사상이 고갈된 현대에 부모에 대한 효사상의 고취는 물론 법회 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우란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범보시가 될 것입니다.

- 수록내용**
- | | |
|---------------------|---------------|
| 제1부 부모은중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 제2부 우리말 부모은중경 |
| 제3부 목련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 제4부 우리말 목련경 |
| 제5부 우란분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 제6부 우란분회란 |
| 제7부 우리말 우란분경 | |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그리고 인사말, 법회안내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범보시 가격/1권당 1,000원
 - 크기/신국판(152cm×223cm) 64페이지
 - 책 뒷장에 범보시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 미리 접수 바랍니다.

[온라인 번호]
농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체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문빈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02)723-4306~7 FAX 738-8682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02)723-4306~7 FAX 738-8682